

정책참고자료

## 최근 기업활동의 4대 리스크와 정책과제

2006. 2.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 I. 기업활동의 4대 리스크 현황

## 1. 시장경쟁격화

### □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 현황

- 2004년 포춘 500대 기업 중 263개 社가 한국에 진출해 국내기업과 경쟁하고 있음 (KOTRA, 2004.8.9)

한국에 진출한 세계 500대 기업수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기업수	197개	223개	247개	263개

-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 중 매출액 상위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2%인 138개사가 자사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응답 (대한상의, 2006.1.6)

외국계기업의 한국시장 점유율 3위 이내인 상품 또는 서비스 존재여부

있음		없음	계
1위	2위		
26.8% (67개)	28.4% (71개)	4.8% (112개)	100% (250개)

- 샴푸, 가스렌즈, 엘리베이터, 컴퓨터OS, 컬러레이저프린너, 조명등, 패밀리 레스토랑 등 모두 외국계 회사들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우리 생활 곳곳이 외국계 회사들의 제품으로 넘쳐나고 있음

한국시장 점유율 1위인 외국계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구분	제품 및 서비스명
생활용품	아기용 종이기저귀(유한킴벌리), 고급샴푸(P&G 펜틴), 탄산음료(코카콜라), 일회용 건전지(에너지아저코리아), 스포츠용품(나이키)
컴퓨터·사무용기기	컴퓨터운영체제(MS), 컬러레이저프린터(후지제록스), 복사기(후지제록스)
가전	가스렌지(린나이코리아), 전자사전(사프전자), 핸디캠(소니코리아)
서비스산업	국제특송(DHL코리아), 패밀리레스토랑(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자동차 및 부품	대형승용차(쌍용자동차 체어맨), 자동차용미러(쉐프네커펡정), 변속기(한국보그워너TS), 차량용 에어컨(한라공조), 쉐루프(베바스토통회), 자동차용 계기판(씨멘스브이디오한라, 텐소풍성)
전기·기계	전자컷넥터(한국몰렉스), 전동공구(한국로버트보쉬기전), 조명기구(오스람코리아), 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 수치제어장치(한국화낙)
석유화학·요업	MDI(한국바스프),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삼성코닝, 한국전기조자)
의약품	고혈압치료제(한국화이자 노바스크), 당뇨병치료제(한독약품 아마릴), 고지혈증 치료제(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플라빅스)
제지	신문용지(한국노스케스코그)

## □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 현황

- 포춘500대 기업중 우리나라 기업은 2005년에 11개 기업으로 매출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86%에 불과함
  - 삼성전자(39위), 현대자동차(92위), LG전자(115위), SK(117위), 삼성생명(251위), POSCO(276위), 한국전력(277위), 한화(393위), KT(414위), 삼성물산(442위), SK네트웍스(446위) 등
  - 500대기업에 포함된 국내 11개 기업 전체의 자산총액은 4,610.4억 달러로 이국기업들의 2.5%, 일본기업들의 5.6%에 불과
  
- 국내기업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외국 경쟁업체들이 한국산 추격에 나서면서 시장지위를 위협하고 있음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는 도시바, FED 등 일본기업들이 연합세력을 형성
  - 디지털TV에서는 일본의 사프와 마쓰시다가 LCD와 PDP에 올인하고, 일본 정부까지 한국산 공세
  - 최근 일본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D램 분야 합작회사인 마이크론 재팬 보호용으로 상계관세<sup>1)</sup>를 전격적으로 부과기로 함
  
- 국내기업이 후발주자인 산업의 경우 외국 선발주자와의 경쟁에서 고전
  - 컬러프린터 시장은 후지제록스, HP, 엡손 3개사가 과점상태에 있어 2001년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뒤늦게 이 시장에 참여해 시장 장악력이 아직까지 미미함
  - 전자재료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관련 제품군 개발, 생산확장 등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시장을 확고히 잡고 있는 니토덴코, 시미토모 등의 일본업체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
  
- 현대·기아자동차와 도요타·혼다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 격화

---

1)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System : CVD)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부과되는 관세. 부과되는 관세는 정부 보조금 범위 내에서 결정됨

- 미국에서 현대차는 앨라배마공장에서 만든 3300cc짜리 소나타와 신형그랜저를 내놓아 캠리(도요타), 어코드(혼다)를 맹추격
  -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일본 업체들을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도요타 등이 최근 공세를 강화
- 일본현대·기아자동차와 도요타·혼다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 격화
- 미국에서 현대차는 앨라배마공장에서 만든 3300cc짜리 소나타와 신형그랜저를 내놓아 캠리(도요타), 어코드(혼다)를 맹추격
  -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일본 업체들을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도요타 등이 최근 공세를 강화

#### □ 시장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 1995년에 1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들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7%만 생존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어 적자기업(매출액경상이익율 0%이하)의 비중이 1995년 17%, 2000년 20.6%, 2004년 23.3%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과 인력, 경영노하우마저 취약해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1994년 56,472개의 중소 제조업체 중 10년 뒤인 2003년까지 생존한 기업은 14,315개(25.3%)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75개(0.13%)에 불과함 (2005.10, 한국개발연구원 조사결과)

## 2. 환율불안과 고유가

#### □ 환율의 불안정성

- 원화는 2004년 이후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해 지속적인 절상추세를 기록
  - 2005년 원/달러 환율은 전년 1,145원(연평균) 대비 10.5% 급락한 연평균 1,024원 기록
  - 원화가치의 상승은 미국의 달러화 약세 정책과 국내로의 달러화 유입 증가

### 등이 주요인

- 美, 對중국, 일본,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2004년 전체 무역적자의 38.6%를 차지해 이들 국가에 대한 절상압력 지속
- 원화 절상 가속으로 수출 급감 가능성 고조
  - 무역연구소의 수출기업 730개사 조사결과, 수출기업의 적정 환율은 달러당 평균 1,096원, 손익분기점 환율의 평균은 1,066원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지속했던 대기업의 수출에도 차질 예상
  - 2005년 들어 원화절상 지속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은 영업이익이 감소. LG필립스 LCD는 1,62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516억원 영업손실 발생
-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채산성 관리 및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위축
  - 2004년 이후 환율절상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과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

###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12	'06.1	'06.2현재	'00년 대비 증가율
		국제유가 (달러)	Dubai	26.27	22.84	23.88	26.80	33.74	49.37	58.45
Brent	28.87		24.83	25.20	28.81	38.36	54.30	63.01	58.06	101%
WTI	30.32		25.97	26.17	31.08	41.50	56.46	65.47	59.76	97%
평균기준환율 (원)		1,130.61	1,290.83	1,251.24	1,191.89	1,144.67	1,024.31	987.03	974.10	-13.8%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 고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최근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세를 지속
  - 지난 8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배럴당 올해 1월에는 60~70달러대에 이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올해에도 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
  - 석유산업연구소(PIRA)는 WTI에 대해 올해에 배럴당 52.40달러,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는 54.50달러로 전망, 다만 CERA는 고유가 상황시 76.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
-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기업에게 가장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국내기업의 불안요인 1순위는‘高유가(34.3%), 그 다음으로 정책불확실성(22.0%), 환율변동(18.3%) 순
  - 국내기업 10곳 중 7곳(69.0%), 유가 55\$ 넘으면 수익성 확보 곤란
-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은 경제성장과 무역수지, 원유 및 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우려
  - 유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려 기업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

### 3. M&A위협

#### □ 국내증시의 외국인 비중 증가

- 국내증시의 외국인 비중(유가증권시장)이 2000년 30.19%에서 2006년 2월 현재 40.5%까지 상승했으며, 외국인 1인이 5% 이상 주식 소유한 상장사의 숫자가 450개까지 늘어남
- 외국인 주주는 배당확대, 지배구조개선요구, 중장기투자대신 단기적 수익성 요구, 외국인주주측 이사선임 등 경영간섭을 하고 있음

국내증시의 외국인주주비중 현황(시가총액기준)

구분 \ 년도	'00	'01	'02	'03	'04	'05.12.29	'06.2.20
유가증권시장	30.19%	36.62%	36.01%	40.11%	41.97%	39.8%	40.5%
코스닥시장	6.89%	10.31%	10.50%	14.43%	15.41%	13.4%	13.8%

※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외국인 5%이상주주 지분보유현황(회사수)

구분 \ 년도	'02	'03	'04	'05	'02년 대비 증가율
	유가증권시장	81개	180개	197개	218개
코스닥시장	118개	161개	182개	232개	96.6%
계	199개	341개	379개	450개	126%

※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현황

- M&A시장 전면 개방

- 국제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IMF시기에 M&A가 기업구조조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기업간 M&A에 대한 규제가 사라짐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폐지되어 사실상 국내 경영권시장이 완전 개방됨

-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비중 확대

- 상장기업의 외국인주주비중이 2001년말 36.8%에서 2006년 현재 40%를 넘어 서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대적 M&A는 주로 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와 시장매집 등의 방법에 의해 시도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적대적 M&A사례

년도	내용
1994	· 한솔그룹이 공개매수와 시장매집으로 동해투자금융(주) 인수
1995	· 동부그룹이 시장매집으로 한국농약의 경영권 인수 · (주)원진이 경남에너지(주)에 공개매수하였으나 실패 · 쌍용그룹이 인천투자금융(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1996	· 신원그룹이 시장매집으로 제일물산(주) 경영권 인수 · 지방소주3사가 OB맥주, (주)효진이 향도종금(주), 큐닉스컴퓨터가 범한정기 등 공개매수로 경영권 인수 시도
1997	· 태일정밀과 대구종금, 신동방과 미도파, 사보이호텔과 신성무역, 제일금고와 신한종금, 중원과 레이디가구 사이에 공개매수 또는 시장매입의 방법으로 경영권 쟁탈전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권 규합, 위임장대결에 의한 적대적 M&amp;A 시도</li> <li>· 동서위생의 고니정밀(주), 노수덕의 (주)금양, 백광훈의 대림통상</li> </ul>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기업에 대한 공개매수는 우호적으로 이루어짐</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기업에 다시 적대적 M&amp;A 나타남</li> <li>· 국영지엔엠과 새롬기술 경영권분쟁 (2002년)</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mp;A 시도</li> <li>· 소버린자산운영이 SK(주)의 지분 14.99%취득 후 경영권 탈취 시도</li> <li>· 외국계 펀드들이 현대엘리베이터(주) 지분 11%이상을 취득하여 경영권에 위협을 가함</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고려화학의 현대엘리베이터, 동성화학의 에스텍, 이랜드월드의 세이브존 I&amp;C 등에 대한 공개매수</li> </ul>

- 외국인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사례 증가

- SK-소버린, 현대엘리베이터-GMO이머징마켓펀드 등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매입으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은 외국계펀드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넘겨 주었으며, 해당기업의 경영위축이라는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
- 현재 KT&G의 지분 6.59%를 보유한 아이칸은 사외이사 추천 및 위임장 확보로 본격적인 경영권 위협. 이에 KT&G는 우호세력확보를 위해 해외 IR일정을 앞당기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

- 경영권방어를 위해 활용할 법적 수단이 다양하지 못해 자사주매입과 배당확대 등 현금투입형 방어대책에 의존

- 지난해 상장사의 현금 배당액 및 자사주 매입액은 각각 10조 1,409억원, 5조 9,587억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상장사 전체 순이익 47조 8,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의결권없는 보통주, 복수의결제도, 일반주주에 대한 의결권상한제, 포이즌필 또는 신주예약제도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4. 기업대상 소송리스크

##### □ 기업대상 소송 현황

- IMF사태 이후 기업 및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제도가 새

로 도입되거나 강화

-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 도입
-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이사의 충실의무 및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및 최고경영자의 인증의무화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 이에 더하여 주주행동주의 및 소비자행동주의와 맞물리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경향

- 기업의 소송대비비용 및 기업대상 소송건수 증가추세

-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비용이 매년 현저히 증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원배상책임보험	309억	326억	761억	840억
생산물책임보험	24억	26억	397억 <sup>2)</sup>	461억
계	334억	352억	1,158억	1,301억

※ 자료 : 보험개발원

- 최근 5년간 상장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00년 18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04년 326건 으로 18배 증가
- 이처럼 소송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주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한과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비중이 5년간 평균 81%에 달하는 등 뚜렷한 근거없이 소송이 남발되는 경향도 한 몫하고 있음

**상장기업의 피소건수 현황 (단위:건)**

구분	'00	'01	'02	'03	'04
소송건수	18	81	105	211	326

**상장기업의 소송 종결 현황 (단위:건)**

구분	'00	'01	'02	'03	'04	계(%)
원고승소	4	3	6	13	15	41(19%)
취하·기각	9	25	29	52	60	175(81%)
계	13	28	35	65	75	216(100%)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2) 가입액이 2002년에 급증한 것은 200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

## □ 기업대상 소송 전망

- 내년이후 증권집단소송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증권집단소송은 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분부터 적용 → 지금까지 제기된 적 없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이후에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 미국의 경우 지난 6년간 전체 상장기업의 2.5% 정도가 매년 증권집단소송으로 피소 → 국내 상장기업(1,547개사)에 적용시 매년 39개가 피소될 수 있음

미국의 연도별 증권집단소송 제기현황

연 도	'99	'00	'01	'02	'03	'04
제기건수(건)	207	201	175	218	175	212
전체 상장기업 대비 제기비율(%)	2.3	2.5	2.1	3.0	2.4	2.8

- 소비자단체소송제가 새로 도입될 예정으로 기업 소송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
  - 소송자격을 소비자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 일반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1,100개가 넘게되어 남소우려가 있음
  - 유럽에서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영국의 경우 소비자협회 1개뿐이며, 독일의 경우도 63개에 불과

## II. 정책과제

- 공격자와 방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다양한 경영권방어수단을 인정해야 함
  -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보통주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특별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의결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허용된 제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1주1의결권원칙에 반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 독약조항 활용근거 마련 : 적대적 M&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미국기업의 56%정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약조항은 보통주주에게 이익배당으로서 주식매수/매도권을 배정하는 것임. 그러나, 상법상

이익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음

- 기업의 소송관련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에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 공익소송제 등 새로운 유형의 소송제도 도입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함
-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품질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

<끝>